

#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 동향 점검

2023. 5. 25.



금융감독원

## I.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 동향

\* 은행, 저축은행, 여전사, 상호금융(증권사, 보험사, 새마을금고 제외)

□ **(업권별)** '23.3말 은행 연체율은 0.33%로 최근 상승에도 불구하고 팬데믹 발생 직전인 '19년과 비슷한 낮은 수준

- 카드사(1.53%)와 캐피탈사(1.79%)는 연체율이 '19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으로 회귀
- 연체율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저축은행(5.07%)과 상호금융(2.42%)은 각각 '16년 및 '14년 수준으로 회귀하였으나 그 이전 시기의 최고치\*보다는 낮은 수준

\* (저축은행) 저축은행 사태 당시('13말) 21.70%, (상호금융) '12년 3.86%→'13년 3.38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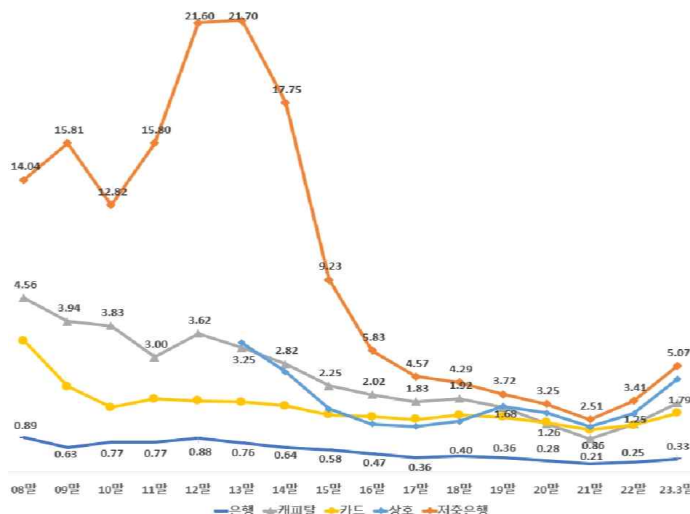
□ **(대출종류별)** 가계대출 연체율은 중저신용자가 많은 저축은행 5.59%, 캐피탈 3.46%, 카드사 2.51% 順 (은행 0.31%, 상호금융 1.25%)

- 기업대출 연체율은 부동산관련 여신(PF대출\* 포함) 비중이 큰 저축은행 5.07%, 상호금융\*\* 3.69%, 캐피탈사 2.31% 順 (은행 0.35%)

\* (PF대출 연체율) '23.3말 저축은행 4.07%, 여전사 4.31%

\*\* 다가구·연립주택, 상가 등 非주택 부동산담보 대출 위주로 연체율 상승

### 업권별 연체율 장기 추이(%)



▶(은행) 현재 연체율이 은행 장기 평균 연체율(0.78%)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

▶(저축은행) 저축은행 사태 직후(21.70%)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

▶(상호금융) '12년 3.39%로 '23.3말 대비 약 1.4배

▶(여전사) 최근 연체율은 '08년 금융위기 대비 낮은 수준('08년 캐피탈 4.56%, 카드 3.43%)

## 1

## 은행

□ '23.3말 국내은행 연체율은 0.33%(잠정)로 전년말 대비 상승하였으나 (+0.08%p), 분기말 연체채권 정리 등으로 전월 대비 하락( $\Delta 0.03\%$ p)

○ 부문별로 가계신용대출이 0.59%로 가장 높고(+0.13%p), 기업대출\*은 전년말 대비 0.08%p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('23.3말 0.35%)

\* 중소기업 연체율이 0.41%로 가계보다 큰 폭으로 상승(+0.09%p)했으며, 개인사업자는 전년말 대비 +0.11%p 상승한 0.37%로 중소기업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

##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, 조원)

구 분	'19.12말	'20.12말	'21.12말	'22.12말 (a)	'23.2말 (b)	'23.3말 (c)	전년말비 (c-a)	전월말비 (c-b)	'23.3말 대출잔액	(비중)
기업대출	0.45	0.34	0.26	0.27	0.39	0.35	+0.08	$\Delta 0.04$	1,240.2	57.3
(대기업)	0.50	0.27	0.24	0.05	0.09	0.09	+0.04	-	237.0	10.9
(중소기업)	0.44	0.36	0.27	0.32	0.47	0.41	+0.09	$\Delta 0.06$	1,003.2	46.3
개인사업자	0.29	0.21	0.16	0.26	0.39	0.37	+0.11	$\Delta 0.02$	444.2	20.5
가계대출	0.26	0.20	0.16	0.24	0.32	0.31	+0.07	$\Delta 0.01$	891.3	41.2
(주택담보)	0.20	0.14	0.10	0.15	0.20	0.20	+0.05	-	642.2	29.7
(가계신용등)	0.41	0.34	0.29	0.46	0.64	0.59	+0.13	$\Delta 0.05$	249.1	11.5
원화대출 계	0.36	0.28	0.21	0.25	0.36	0.33	+0.08	$\Delta 0.03$	2,165.2	100.0

## 2

## 저축은행

□ '23.3말 저축은행 연체율은 5.07%로 신규연체 발생은 다소 둔화\* 되었으나, 대출취급 감소의 영향\*\* (분모감소 효과)으로 연체율 상승 지속

\* 신규 연체채권 규모(조원): ('23.1월) 1.5 → (2월) 1.3 → (3월) 1.2 ( $\Delta 0.1$ )

\*\* '23.3말 저축은행 대출잔액은 113.2조원으로 전년말(115.1조원) 대비  $\Delta 1.9$ 조원 감소

○ 부문별로는 부동산 경기하락의 영향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 (5.07%, +2.24%p)한 가운데 가계(5.59%, +0.85%p)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상승\*

\* 저축은행은 지역 서민·중소기업 신용공급 목적으로 설립되어 다른 권역보다 저신용자 대출을 많이 취급

## 저축은행 연체율 추이

(단위: %, %p, 조원)

구 분	'19.12말	'20.12말	'21.12말	'22.12말 (a)	'23.3말 (b)	전년말비 (b-a)	'23.3말 대출잔액	(비중)
기업대출	3.95	3.40	1.85	2.83	5.07	+2.24	68.7	60.7
(개인사업자)	4.33	3.91	1.99	3.31	5.17	+1.86	23.4	20.7
가계대출	3.58	3.26	3.75	4.74	5.59	+0.85	39.9	35.2
(가계신용)	3.79	3.57	4.16	5.14	6.14	+1.00	28.7	25.4
원화대출 계	3.73	3.25	2.51	3.41	5.07	+1.66	113.2	100.0

## 3

## 상호금융

- '23.3말 상호금융 연체율은 2.42%로 전년말 대비 0.90%p 상승
-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이 3.69%로 상대적으로 상승폭(+1.46%p)이 컸으며\*, 가계 연체율은 1.25%로 대체로 양호

\* 부동산 경기 하락의 영향으로 다세대·연립주택(8.7조원, 연체율 8.3%) 및 상가(61.1조원, 연체율 4.4%) 등 비주택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

## 상호금융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, 조원)

구 분	'19.12말	'20.12말	'21.12말	'22.12말 (a)	'23.3말 (b)	전년말비 (b-a)	'23.3말 대출잔액	(비중)
가계대출	1.42	1.19	0.82	0.91	1.25	+0.34	235.7	49.1
기업대출	2.47	2.23	1.76	2.23	3.69	+1.46	244.1	50.9
원화대출 계	1.71	1.54	1.17	1.52	2.42	+0.90	479.8	100.0

\* 정책자금대출(17.4조원) 제외 기준, 정책자금대출 포함시 총대출은 497.2조원

## 4

## 여전사

- '23.3말 연체율은 캐피탈사 1.79%, 카드사 1.53%로 전년말 대비 각각 0.54%p, 0.33%p 상승
- 캐피탈사는 할부·리스 등 고유자산 연체율은 양호(0.64%)한 수준이나 가계·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(각각 +0.55%p, +1.01%p)
  - 카드사는 신용판매 연체율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(0.86%)이나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연체율이 비교적 큰 폭 상승(+0.56%p)

## 여전사 연체율 추이

(단위 : %, %p, 조원)

구 분		'19.12말	'20.12말	'21.12말	'22.12말 (a)	'23.3말 (b)	전년말비 (b-a)	'23.3말 대출잔액	(비중)
캐피탈사	고유자산*	1.03	0.82	0.62	0.57	0.64	+0.07	76.6	40.8
	기업대출	1.27	0.90	0.54	1.30	2.31	+1.01	81.8	43.6
	가계대출	3.93	2.93	2.05	2.91	3.46	+0.55	26.9	14.3
	총채권	1.68	1.26	0.86	1.25	1.79	+0.54	187.8	100.0
카드사	카드채권	1.58	1.45	1.24	1.38	1.72	+0.34	130.5	81.7
	(신용판매)	0.74	0.64	0.54	0.65	0.86	+0.21	90.0	56.3
	(카드대출)	3.15	2.89	2.60	2.98	3.54	+0.56	40.3	25.2
	총채권	1.43	1.29	1.09	1.20	1.53	+0.33	159.7	100.0

\* 할부, 리스 등

## II. 최근 연체 동향에 대한 평가

- 최근의 금융권 연체율 상승은 '22년 이후의 금리상승, 경기 둔화, 부동산시장 침체 등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,
  - 코로나19 시기 대출이 급증하며 '21년 사상 최저치로 하락한 연체율이 대출 위축과 함께 과거 수준으로 회귀(기저효과)하는 측면도 존재
  - 현재의 연체율 수준은 대체로 팬데믹 발생 직전(은행, 여전) 또는 '14~'16년(상호금융, 저축은행)과 비슷한 수준으로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나 저축은행 사태 등의 시기에 비해서는 양호
- 향후 연체율 추이는 앞으로의 금리, 부동산, 실물경제 향방에 좌우되겠으나 당분간은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
  - 부동산시장 연착륙이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여신의 연체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,
  - 9월말부터 코로나19 상환유예 여신의 상환이 개시되면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존재 (다만, 영향은 제한적 예상\*)

※ 현재 적용중인 금융권 상환유예\* 여신의 절대규모(3월 6.6조원)가 크지 않고 대부분 은행(80% 이상)에서 취급되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\*\*

\* 은행권 만기연장 여신은 78.7조원('25.9월까지 적용)

\*\* 은행 상환유예 여신(5.3조원) 전액 연체를 가정하더라도 연체율이 0.57%까지 상승(+0.24%p) 하나, 은행 장기(코로나19 발생전 과거 10년) 평균 연체율(0.78%) 대비 낮은 수준

- 아울러 최근 은행권 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대출도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연체율\*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음

\* '23.3월 은행 대기업 연체율은 0.09% 중소기업 연체율은 0.41%로 비교적 낮은 수준

□ 다만, 최근 금융권이 연체채권 매각·상각, 여신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연체 등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,

-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및 자기자본 확충 등을 통해 손실 흡수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\*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,

\* (국내은행) '23.3말 대손충당금적립률은 229.9%이며, '19년 112.1%에서 크게 상승(+117.8%p)  
(저축은행) '23.3말 BIS비율은 13.59%로, '08.6말 금융위기(9.08%) 대비 크게 개선

- 현재로서는 금융시스템의 건전성·안전성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

### Ⅲ. 향후 대응

□ 금감원은 금융권 연체율 동향에 대한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하여 건전성 이상징후 발견시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

- 특히, 건전성 취약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징구·경영진 면담 추진 등 선별적으로 대응\*하되, 악화 우려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확약서·MOU 체결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

\*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업계 간담회,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매·상각 등 부실채권 정리 및 연체가 증가한 부문의 선제적인 충당금 추가적립 등을 지속 지도 중

- 또한, 경기둔화 장기화시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하여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지도\*하고, 필요시 자본확충도 유도

\* (은행)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관련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점검체계 구축 등 손실흡수능력 제고 지속 유도

(상호) 부동산·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률 상향(100→130%) 규정 개정 추진중

#### ※ 그간 감독당국의 주요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 조치 사례

- (국내은행) CCyB 1% 부과('23.5.24. 금융위 의결),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신설 추진('23.1.25. 규정변경 예고)
- (저축은행·여전사)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시 신용환산율을 20%→40%로 상향('23.1월 시행)
- (상호금융) 법인 非주택담보대출 LTV 최저비율(50%) 적용 등 제도 개선('23.1월)

□ 아울러 신속한 매각·상각 등을 통해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토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, 선제적으로 취약 부문 차주의 연착륙을 유도

- 추정손실 분류 여신을 조속히 상각하고 부실채권 매각 확대 등을 통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 관리를 강화토록 지도\*

\* 은행은 '23.3월 매·상각 등을 통해 연체채권 2.4조원을 정리한 결과, 전월대비 연체율이 하락( $\Delta 0.03\%p$ )했으며, 저축은행은 상각 절차 간소화 등으로 적극 상각 유도 中

-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채무 재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재기지원 강화
- PF대출에 대해서는 既마련한 PF대주단 협약 및 업권별 자율 협약 활성화, 캠프 매각 등을 통해 연착륙 도모
- 기업 차주의 경우, 엄정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기업 상황을 면밀히 진단, 정상화 가능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 지원